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시스템화하는 데 적극일 필요가 있다.

Ⅴ. 結言

최근의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행태가 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가상공간 내에서 가능한 일들의 잠재적 가능성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단순한 通信網의 연결에 불과했던 인터넷은 각종 기능이 플러그인(plug-in)되고 통신 속도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 미래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거래들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산업의 발전의 흐름을 더불어 타고 그 과실을 보험산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 누가 얼마만큼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래의 생존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심화된 경쟁환경 속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내보험회사에게 정보기술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술의 채용은 더 나아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내기 위한 필연적 노력이며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고객의 거래 行態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도 정보기술이 가져다 주는 利器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개별 정보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각 부문별로 실무적인 정보기술구현 사례와 적용 방향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주의 인용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보험회사 뿐 아니라 솔루션 개발하는 정보산업계, 인공지능 등 전문가시스템을 연구하는 학계 등의 분야별 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보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